

제44호(2017. 12. 22.)

2017년 한·영연방 FTA 체결국별 농축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

송우진 이현근 유정호 명수환



목 차
contents

1. 한·영연방 FTA 추진 현황	1
2. 한·영연방 FTA 농축산물 교역 동향	4
3.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및 가격 분석	17
4. 요약 및 시사점	28

감 수	정민국 선임연구위원	061-820-2263	mkjeong@krei.re.kr
내용 문의	송우진 연구위원	061-820-2328	gnos@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44호

2017년 한·영연방 FTA 체결국별 농축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7. 12.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요약 Summary

- 한·영연방 FTA는 국가별로 호주는 이행 4년차,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이행 3년차를 맞이함.
 - 영연방과의 FTA에서 상대국이 수출경쟁력을 가진 곡물과 축산물 모두 양허제외, TRQ (관세율할당)와 ASG(농산물긴급수입제한조치), 10년 이상의 장기철폐 적용
 - 과일·채소 분야에서도 오렌지와 키위 등의 품목은 양허제외 되거나 계절관세 적용
- 한·영연방 FTA 이행에 따라 2017년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7.7% 증가했고, 대영연방 농축산물 수출액은 52.0% 증가하는 등 수출입 모두 확대
 -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41.3억 달러이며, 영연방 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호주산 수입액이 평년 대비 20.3% 증가해 수입 증가를 견인
 - 대영연방 농축산물 수출액은 2.2억 달러이며, 영연방 3개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호주 84.9%, 캐나다 20.4%, 뉴질랜드 10.3% 증가)
- 2017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 및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각각 92.1%와 44.6%이며,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상승 추세이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정체
 -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전체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5년 84.4%에서 2017년 92.1%로 7.7%p 증가했으며,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5년 47.8%, 2016년 44.1%에서 2017년 44.6%로 하락 및 정체 상태
- 2017년 영연방 국가의 수출 경쟁력이 높은 품목들의 수입이 평년과 전년 대비 모두 증가
 - 축산물은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협정관세율 인하 효과로 통관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완화됨.
 - 과일은 협정관세율 인하로 통관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됨.
 - 곡물(밀, 보리)은 협정관세율 인하와 TRQ 적용으로 통관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전환 등에 따라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함.
- 시장 개방 확대로 국내 산업피해 요인과 수출로 인한 기회 요인이 확대되고 있어 수입 증가 품목과 대체관계가 큰 국내 신선과일 등에 대한 가격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 필요
 - FTA 체결국의 생산 및 가격 등의 시장정보 수집 강화, 수입 증가 품목에 대한 국내 대체품의 생산 및 가격 정보 모니터링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국내 농축산업의 수출품목 발굴과 수출 특혜관세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 간소화 및 인증수출자 제도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01 | 한·영연방 FTA 추진 현황

2017년 한·호주 FTA는 이행 4년차, 한·캐나다/한·뉴질랜드 FTA는 이행 3년차

1.1. 한·영연방 FTA 추진 개요

- 한·호주 FTA는 협상개시(2009. 5.) 이후 약 5년 만에 실질타결과 정식서명이 이루어졌으며, 2014년 12월 정식 발효
 - 한·호주 FTA는 '09년 5월에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총 7차례의 공식협상과 8차례의 비공식회의 등을 거쳐 '13년 12월 4일에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
 - 한·호주 FTA는 호주 내 아시아 국가 간 경쟁 심화 특히, 일본·호주 EPA('15.1.15) 발효에 대응하여 '14년 12월 12일에 조기 발효됨.
- 한·캐나다 FTA는 협상개시(2005. 7.) 이후 약 9년 만에 실질타결과 정식서명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1월 1일 정식 발효
 - 한·캐나다 FTA는 '05년 7월에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총 13차례의 공식협상 등을 거쳐 '14년 3월 11일에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
 - 캐나다의 광우병 발병으로 우리나라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고, 캐나다의 쇠고기 관련 WTO 제소로 인해 '09년 4월~'11년 6월까지 협상이 잠정 중단됨.
 - 우리나라는 '11년 6월에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했으며, 비공식회의 등을 거쳐 '13년 11월에 FTA 공식협상이 재개된 후 '14년 3월에 협상이 타결됨.
- 한·뉴질랜드 FTA는 협상개시(2009. 6.) 이후 약 5년 만에 실질타결과 정식서명이 이루어졌으며, 20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
 - 한·뉴질랜드 FTA는 '09년 6월에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총 9차례의 공식협상 등을 거쳐 '14년 11월 15일에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
 - 뉴질랜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국, 호주, 아세안 등 15개국과 총 9개의 FTA를 체결했음. 한·뉴질랜드 FTA는 뉴질랜드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됨.

1.2. 한·영연방 FTA 주요 품목별 양허 내용

□ 우리나라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 시 국내 주요 민감 농산물에 대해 양허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ASG), 계절관세 등을 도입하여 국내 농업을 보호

- 곡물의 경우 대부분 민감 품목으로 설정하여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TRQ·ASG 도입 및 10년 이상의 장기 관세 철폐 방식으로 양허함.
 - 쌀과 식용 콩의 경우 영연방 FTA에서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보리·옥수수의 경우 부분적으로 관세율을 감축하거나 TRQ를 도입하여 높은 관세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칩용 감자의 경우 계절관세를 도입하여 국내 감자 출하시기에 고율관세를 부과함.

※ 호주산 칩용 감자 계절관세율: 즉시철폐(12월~익년 4월), 15년 철폐(5~11월)

〈표 1〉 한·영연방 FTA의 주요 곡물 양허 내용

구 분(기준관세율)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쌀	쌀 및 쌀 관련 세번 16개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밀과 메슬린(3%)	즉시철폐	즉시철폐	3년철폐
밀	밀가루(288%)	양허제외	10년철폐	양허제외
	겉보리(324%) 쌀보리(299.7%)	양허제외	15년+ASG+TRQ	양허제외
보리	맥아(269%) 맥주맥(513%)	15년+ASG+TRQ	12년+TRQ(맥아)	10년간 50% 감축(맥아)/양허제외
	팝콘용(630%) 종자용(328%)	18년	10년	10년간 50% 감축
옥수수	식용(487%)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양허제외
	기타(487%)	10년간 50% 감축	10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양허제외(사료용)	양허제외(채유 및 탈지대두 박용은 10년간 50% 감축)
콩	식용(304%) 냉동·건조(27%)	양허제외(냉동·건조 15년/7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냉동, 건조, 종자용 10년)	양허제외(냉동, 건조 15년/7년, 종자용 10년)
	칩용(304%) 감자분(304%)	계절관세(즉시/15년) 양허제외	계절관세(즉시/15년) 10년+ASG+TRQ	계절관세(즉시/15년) 양허제외

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2015. 8.).

- 축산물도 대부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여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TRQ·ASG 도입 및 10년 이상의 장기 철폐 방식으로 양허함.
 - 쇠고기와 닭고기는 각각 15년과 10년 동안 관세율이 철폐되며, 쇠고기의 경우 긴급수입 제한조치(ASG)를 도입

※ 호주산 쇠고기 ASG(톤): 154,584(1년차, 40%) → 157,676(2년차, 40%) → 160,829(3년차, 40%)

※ 뉴질랜드산 쇠고기 ASG(톤): 37,000(1년차, 40%) → 37,740(2년차, 40%)

-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유제품(분유, 치즈, 버터)에 대해 TRQ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캐나다산 유제품은 대부분 양허대상에서 제외됨.

※ 조제분유 TRQ: 499톤(호주산, 2016년), 235톤(뉴질랜드산, 2016년)

※ 치즈 TRQ: 4,912톤(호주산, 2016년), 7,210톤(뉴질랜드산, 2016년)

※ 버터 TRQ: 118톤(호주산, 2016년), 824톤(뉴질랜드산, 2016년)

〈표 2〉 한·영연방 FTA의 주요 축산물(유제품) 양허 내용

구 분(기준관세율)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쇠고기	신선·냉장·냉동(40%)	15년+ASG	15년+ASG/양허제외	15년+ASG
	식용 설육(18%)	15년	11년	15년
돼지고기	냉동 삼겹살(25%)	양허제외	13년+ASG	양허제외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10년/15년	13년+ASG	양허제외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7년/양허제외	5년/6년	18년/양허제외
닭고기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18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절단하지 않은 닭(18, 20%)	18년	10년/11년	18년/양허제외
	냉장육(18%), 닭고기 가공품(30%)	18년/10년	10년/양허제외	양허제외
분유	탈전지분유·연유(176, 89%)	양허제외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조제분유(36, 40%)	13/15년+TRQ	양허제외	13/15년+TRQ
	혼합분유(36%)	13/15년	양허제외	10/15년
치즈	신선·가공·기타 치즈(36%)	20년/18년+TRQ	양허제외	12년/15년+TRQ
	체다 치즈(36%)	13년+TRQ	양허제외	7년+TRQ
버터	버터(89%)	15년+TRQ	양허제외	10년+TRQ
꿀	천연꿀(243%)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양허제외
	인조꿀(243%)	양허제외	10년	양허제외

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2015. 8).

〈표 3〉 한·영연방 FTA의 주요 과일·채소 양허 내용

구 분(기준관세율)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뉴질랜드 FTA
감귤류·오렌지	온주감귤(144%)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만다린, 탄제린(144%)	계절관세	11년	양허제외
	오렌지(50%)	계절관세+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사과·배·포도	사과(45%)	양허제외	후지 품종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양허제외
	배(45%)	양허제외	동양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양허제외
	포도(45%)	계절관세	양허제외	양허제외
키위	키위(45%)	계절관세(현행/15년)	10년	6년
체리	체리(24%)	즉시철폐	10년	즉시철폐
아보카도	아보카도(30%)	15년	10년	10년
호박	호박(27%)	15년	10년	계절관세(5년/현행)
고추	신선·냉장·건조 고추(270%)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냉동 고추(27%)	양허제외	11년	양허제외
마늘	신선·냉장·일시저장·건조 마늘(360%)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냉동 마늘(27%)	18년	11년	18년
양파	신선·냉장·건조 양파(135%)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냉동 양파(27%)	15년	11년	15년

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2015. 8).

- 과일·채소의 경우 대부분의 신선 농산물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거나 계절관세 적용
 - 한·호주 FTA에서는 감귤·오렌지, 포도와 키위 등의 국내 성출하기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계절관세를 도입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함.

※ 호주산 오렌지 계절관세율: 현행유지(10월~익년 3월), 30%로 인하 후 6년 철폐(4~9월)
 ※ 호주산 포도 계절관세율: 현행유지(5~11월), 24%로 인하 후 4년 철폐(12월~익년 4월)
 ※ 호주산 키위 계절관세율: 현행유지(11월~익년 4월), 15년 철폐(5~10월)

- 한·캐나다 FTA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10년 이상의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함.
- 한·뉴질랜드 FTA의 경우 키위와 호박을 제외한 모든 신선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함.

02 | 한·영연방 FTA 농축산물 교역 동향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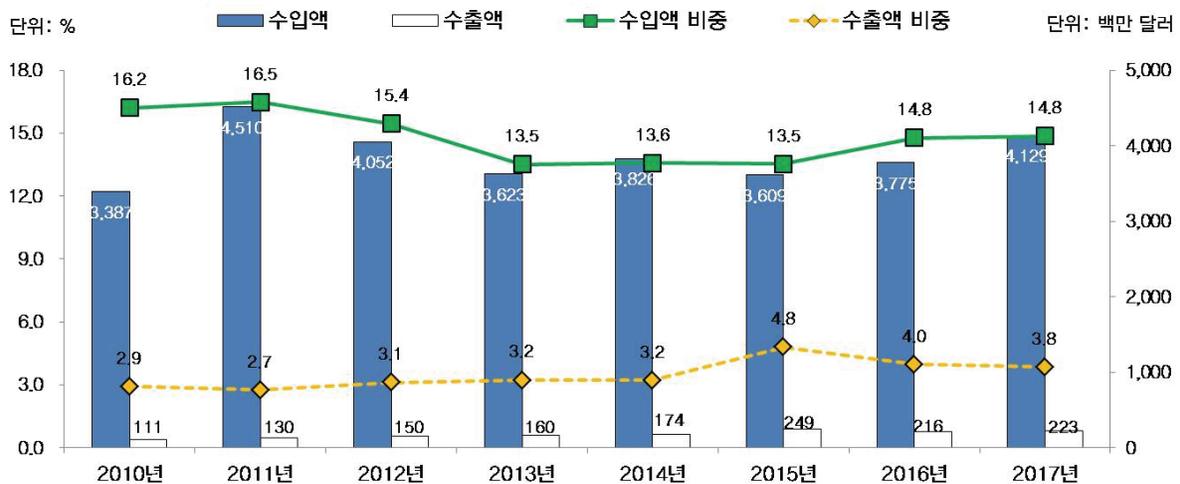
2017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은 평년 대비 7.7% 증가, 수출액은 52.0% 증가

2.1. 한·영연방 농축산물 교역 개황

□ 2017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평년²⁾(2010~2014년) 대비 7.7% 증가한 41.3억 달러, 대영연방 국가로의 수출액은 평년 대비 52.0% 증가한 2.2억 달러

-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음.
 - 2011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45.1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2015년 36.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7년에는 평년 대비 7.7% 증가한 41.3억 달러를 기록함.
 -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에서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비중도 2011년 16.5%에서 2015년 13.5%로 감소한 후 2017년에 14.8%로 2015년 대비 1.3%p 증가함.

〈그림 1〉 한·영연방 전체 농축산물 교역 동향



주: 연도별 수출입 실적은 매년 1~10월 누적액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 본 장의 농축산물(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교역통계는 3,068개 HS코드를 대상으로 집계했음. 각 연도별 교역액은 2017년 10월 이후 수출입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각 연도 1~10월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함.

2) FTA 특혜관세 활용률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영연방 국가 전체와 호주·캐나다의 평년은 2010~2014년 중 최대·최소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을 의미하고, 뉴질랜드는 2011~2015년 중 최대·최소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을 나타냄.

영연방 국가에서 호주와의 수출입 비중이 가장 큼

- 2017년 대영연방 국가로의 농축산물 수출액은 2010년 이후 연평균 10.5% 증가했으며 전년 대비 3.1% 증가함.
 - 대영연방 농축산물 수출액은 2015년 2.5억 달러까지 증가한 이후 소폭 감소해 2017년 수출액은 평년 대비 52.0% 증가한 2.2억 달러를 기록
 -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영연방으로의 수출액 비중은 2011년 2.7%에서 2015년 4.8%로 증가한 후 2017년에 3.8%로 다시 감소함.

□ 2017년 한·영연방 농축산물 수입·수출액 가운데 호주의 비중은 각각 60.2%와 63.0%

- 2017년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평년 대비 각각 20.3%와 0.2% 증가한 24.8억 달러와 7.9억 달러이며, 캐나다산 수입액은 평년 대비 10.6% 감소한 8.6억 달러
 -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2013년 이후 연평균 6.0%의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 수입액은 2011년 이후 각각 8.9%와 1.8%의 감소 추세를 보임.
 -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은 2010년 51.7%에서 2017년 60.2%로 8.5%p 증가했으며, 캐나다산(20.7%)과 뉴질랜드산(19.1%) 수입액 비중은 같은 기간 각각 6.9%p와 1.6%p 감소
- 2017년 대호주, 캐나다와 뉴질랜드로의 농축산물 수출액은 평년 대비 각각 84.9%, 20.4%, 10.3% 증가한 1.4억 달러, 5,451만 달러, 2,810만 달러
 - 대호주 농축산물 수출액은 2010년 이후 연평균 12.5%의 비교적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대캐나다·뉴질랜드 수출액은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전환됨.
 - 대호주 농축산물 수출액 비중도 2010년 55.4%에서 2017년 63.0%로 상승했지만, 대캐나다(24.4%)와 대뉴질랜드(12.6%) 수출액 비중은 같은 기간 4.3%p와 3.3%p 하락

〈표 4〉 한·영연방 국가별 농축산물 교역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0.1-10	11.1-10	12.1-10	13.1-10	14.1-10	15.1-10	16.1-10	17.1-10	증감률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수입	영연방 전체	3,387	4,510	4,052	3,623	3,826	3,609	3,775	4,129	7.7	9.4
	호주	1,750	2,140	2,291	1,968	2,088	2,097	2,278	2,484	20.3	9.0
	캐나다	934	1,494	997	855	941	816	782	856	-10.6	9.4
	뉴질랜드	702	877	763	801	797	696	715	788	0.2	10.3
수출	영연방 전체	111	130	150	160	174	249	216	223	52.0	3.1
	호주	62	68	79	81	87	125	134	140	84.9	5.0
	캐나다	32	39	46	50	55	91	56	55	20.4	-2.5
	뉴질랜드	18	23	25	29	32	33	27	28	10.3	4.8

주 1) 연도별 수출입 실적은 매년 1~10월 실적을 기준으로 함.
 2)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7년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평년 대비 20.3%, 전년 대비 9.0% 증가

2.2. 한·영연방 국가별 농축산물 교역 동향

2.2.1. 한·호주 FTA

□ 한·호주 FTA 이행 4년차(2017년)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2010~2014년) 대비 20.3% 증가했으며, 축산물, 과일·채소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증가

-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한·호주 FTA 발효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 대비 호주산 비중은 FTA 발효 전 평년 7.7%에서 이행 4년차 8.9%로 상승
 - 호주산 수입액(억 달러): 20.7(발효 전 평년) → 20.9('14년) → 21.1(이행 2년) → 22.8(이행 3년) → 24.8(이행 4년)
 - 호주산 수입액 비중(%): 7.7(발효 전 평년) → 7.4('14년) → 7.9(이행 2년) → 8.9(이행 3년) → 8.9(이행 4년)
- 2017년 과일·채소 수입액은 체리, 오렌지, 망고와 포도 등 관세율이 철폐되거나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된 신선 과일 수입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61.7% 증가
 - 체리(80만 달러), 오렌지(420만 달러), 포도(46만 달러), 망고(6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684.2%, 403.1%, 1,686.4%, 443.9% 증가

※ 관세율 즉시철폐: 체리(24%→0), 수입금지 제외: 포도(2013. 12.), 체리·오렌지·레몬·망고(2012. 1.)

※ 품목별 수입량: 체리(8톤→ 68), 오렌지(721톤→ 2,005), 포도(12톤→ 169), 망고(1톤→ 11)

- 2017년 축산물 수입액은 쇠고기, 양고기, 치즈, 유장 등의 수입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41.9% 증가
 - 쇠고기(9.3억 달러), 면양고기(8,195만 달러), 산양고기(1,094만 달러), 치즈(3,304만 달러), 유장(217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41.4%, 405.2%, 242.2%, 35.8%, 274.1% 증가

※ 품목별 수입량: 쇠고기(14.2만 톤→15.4), 치즈(5,556톤→ 7,969), 유장(134톤→ 942)

- 2017년 가공식품 수입액은 당류, 주류, 혼합조미료 등의 수입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46.9% 증가
 - 사탕수수당(6.3억 달러), 당밀(4,383만 달러), 포도주(969만 달러), 혼합조미료(237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90.0%, 343.7%, 48.7%, 30.8% 증가

2017년 대호주 농축산물 수출액은 평년 대비 84.9%, 전년 대비 5.0% 증가

- 2017년 곡물 수입액은 밀, 보리, 옥수수, 대두 등의 수입액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32.9% 감소 - 밀(2.3억 달러), 보리(5,739만 달러), 옥수수(1,600만 달러), 대두(97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33.7%, 27.8%, 11.8%, 70.3% 감소

〈표 5〉 호주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증감률	
	10.1-10	11.1-10	12.1-10	13.1-10	14.1-10	2년차 (15.1-10)	3년차 (16.1-10)	4년차 (17.1-10)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전체	1,750	2,140	2,291	1,968	2,088	2,097	2,278	2,484	20.3	9.0
농산물	1,047	1,184	1,471	1,085	1,068	921	1,058	1,243	11.8	17.5
- 가공식품	694	559	625	587	539	477	703	867	46.9	23.3
- 곡류	351	621	842	494	526	434	344	367	-32.9	6.6
- 과일·채소	2	3	4	4	3	10	10	9	161.7	-16.1
축산물	660	905	789	850	974	1,133	1,186	1,204	41.9	1.5
임산물	44	51	31	33	46	43	34	37	-9.7	8.0

주 1) 한·호주 FTA는 2014년 12월 12일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FTA 이행 1년차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2014년도 실적으로 대체함.

2) 연도별 수출입 실적은 매년 1~10월 실적을 기준으로 함.

3) FTA 발효 전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호주 FTA 이행 4년차(2017년) 대호주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2010~2014년) 대비 84.9% 증가했으며, 축산물, 과일·채소와 가공식품 수출액 증가

- 대호주 농축산물 수출액은 한·호주 FTA 발효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수출액 비중은 FTA 발효 전 평년 1.6%에서 이행 4년차 2.4%로 증가
 - 대호주수출액(억달러): 0.8(발효 전 평년) → 0.9('14년) → 1.2(이행 2년) → 1.3(이행 3년) → 1.4(이행 4년)
 - 대호주수출액 비중(%): 1.6(발효 전 평년) → 1.6('14년) → 2.4(이행 2년) → 2.4(이행 3년) → 2.4(이행 4년)

〈표 6〉 대호주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증감률	
	10.1-10	11.1-10	12.1-10	13.1-10	14.1-10	2년차 (15.1-10)	3년차 (16.1-10)	4년차 (17.1-10)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전체	62	68	79	81	87	125	134	140	84.9	5.0
농산물	56	63	72	72	80	114	124	131	90.2	5.7
- 가공식품	47	53	60	62	70	102	113	118	102.6	5.2
- 곡류	3	3	2	2	2	2	1	2	-37.4	10.6
- 과일·채소	6	7	10	7	9	10	10	11	45.0	10.6
축산물	4	3	5	6	5	9	8	8	74.5	-3.9
임산물	2	2	2	3	3	2	2	2	-26.7	-4.3

주 1) 한·호주 FTA는 '14년 12월 12일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FTA 이행 1년차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14년도 실적으로 대체함.

2) 연도별 수출입 실적은 매년 1~10월 실적을 기준으로 함.

3) FTA 발효 전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17년 캐나다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평년 대비 10.6% 감소, 전년 대비 9.4% 증가

- 2017년 가공식품 수출액은 껌, 라면, 기타베이커리제품, 혼합조제식료품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02.6% 증가
 - 껌(4,132만 달러), 라면(1,423만 달러), 혼합조제식료품(739만 달러), 기타베이커리 제품(709만 달러)의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1,627.9%, 53.2%, 172.7%, 121.1% 증가
- 2017년 과일·채소 수출액은 버섯류, 김치, 마늘, 신선 배, 유자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45.0% 증가
 - 느타리버섯(262만 달러), 팽이버섯(244만 달러), 김치(204만 달러), 마늘(9만 달러), 신선 배(36만 달러), 유자(20만 달러)의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134.6%, 71.8%, 77.9%, 2,594.0%, 372.2%, 39.1% 증가
- 2017년 축산물 수출액은 젤라틴, 발효유, 닭고기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74.5% 증가
 - 젤라틴(420만 달러), 발효유(252만 달러), 닭고기(28만 달러)의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134.0%, 45.4%, 327.1% 증가

2.2.2. 한·캐나다 FTA

□ 한·캐나다 FTA 이행 3년차(2017년) 캐나다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2010~2014년) 대비 10.6% 감소했으며, 곡류, 과일·채소, 축산물과 임산물 수입 감소

- 캐나다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한·캐나다 FTA 발효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수입액 비중은 FTA 발효 전 평년 3.6%에서 이행 3년차 3.1%로 감소
 - 캐나다산 수입액(억 달러): 9.6(발효 전 평년) → 8.2(이행 1년) → 7.8(이행 2년) → 8.6(이행 3년)
 - 캐나다산 수입액 비중(%): 3.6(발효 전 평년) → 3.1(이행 1년) → 3.1(이행 2년) → 3.1(이행 3년)

2017년 대캐나다 농축산물 수출액은 평년 대비 20.4% 증가, 전년 대비 2.5% 감소

〈표 7〉 캐나다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증감률	
	10.1-10	11.1-10	12.1-10	13.1-10	14.1-10	1년차 (15.1-10)	2년차 (16.1-10)	3년차 (17.1-10)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전체	934	1,494	997	855	941	816	782	856	-10.6	9.4
농산물	269	646	282	247	309	237	270	305	6.4	13.2
- 가공식품	61	137	122	79	98	125	136	176	77.1	29.7
- 곡류	206	501	151	161	207	106	128	127	-33.9	-0.8
- 과일·채소	2	8	9	7	4	5	6	2	-62.1	-59.7
축산물	178	317	226	155	146	186	149	162	-13.3	8.9
임산물	487	530	490	452	485	394	364	389	-20.1	6.9

주 1) 연도별 수출입 실적은 매년 1~10월 실적을 기준으로 함.

2) FTA 발효 전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2017년 곡물 수입액은 밀, 겨자씨, 호밀 등의 수입액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33.9% 감소
- 밀(5,087만 달러), 겨자씨(97만 달러), 호밀(20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65.3%, 28.0%, 94.8% 감소
- 2017년 가공식품 수입액은 유채유, 혼합조제식료품, 사료, 대두유, 커피 등의 수입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77.1% 증가
- 유채유(8,207만 달러), 혼합조제식료품(4,223만 달러), 개(고양이) 사료(1,203만 달러), 대두유(400만 달러), 커피(226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82.3%, 86.3%, 523.0%, 7,514.6%, 393.2% 증가
- 2017년 축산물 수입액은 돼지고기, 멩크 생모피, 유장 등의 수입액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3.3% 감소
- 돼지고기(8,769만 달러), 멩크 생모피(1,317만 달러), 유장(694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4.3%, 64.0%, 57.0% 감소

□ 한·캐나다 FTA 이행 3년차(2017년) 대캐나다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2010~2014년) 대비 20.4% 증가했으며, 과일·채소, 가공식품, 곡류, 축산물과 임산물 수출액 모두 증가

- 대캐나다 농축산물 수출액은 한·캐나다 FTA 발효 첫 해 크게 증가한 뒤 발효 전년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수출액 비중은 FTA 발효 전 평년과 이행 3년차 모두 0.9%로 동일
- 대캐나다 수출액(만 달러): 4,528(발효 전 평년) → 9,135(이행 1년) → 5,591(이행 2년) → 5,451(이행 3년)
- 대캐나다 수출액 비중(%): 0.9(발효 전 평년) → 1.8(이행 1년) → 1.0(이행 2년) → 0.9(이행 3년)

2017년 뉴질랜드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평년과 비슷하고, 전년 대비 10.3% 증가

〈표 8〉 대캐나다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증감률	
	10.1-10	11.1-10	12.1-10	13.1-10	14.1-10	1년차 (15.1-10)	2년차 (16.1-10)	3년차 (17.1-10)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전체	32	39	46	50	55	91	56	55	20.4	-2.5
농산물	30	36	43	48	52	89	54	52	21.7	-4.0
- 가공식품	24	29	36	39	44	81	44	41	17.5	-7.6
- 곡류	0	0	0	1	0	0	1	1	104.1	20.8
- 과일·채소	6	6	7	8	8	8	9	10	42.2	12.2
축산물	1	2	2	2	1	1	2	2	10.1	9.3
임산물	1	1	1	1	1	1	1	1	22.1	116.4

주 1) 연도별 수출입 실적은 매년 1~10월 실적을 기준으로 함.

2) FTA 발효 전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2017년 과일·채소 수출액은 버섯류, 김치, 신선 포도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42.2% 증가
 - 느타리버섯(205만 달러), 팽이버섯(144만 달러), 김치(131만 달러), 신선 포도(31만 달러)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64.6%, 66.7%, 31.9%, 956.5% 증가
- 2017년 가공식품 수출액은 라면, 기타음료, 비스킷, 기타베이커리제품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7.5% 증가
 - 라면(701만 달러), 기타음료(344만 달러), 비스킷(314만 달러), 기타베이커리제품(288만 달러)의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70.2%, 13.0%, 49.0%, 149.3% 증가

2.2.3. 한·뉴질랜드 FTA

- 한·뉴질랜드 FTA 이행 3년차(2017년) 뉴질랜드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2011~2015년)과 비슷한(0.2%) 수준이며, 과일·채소와 가공식품의 수입은 증가했으나 임산물 수입은 감소
 - 뉴질랜드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한·뉴질랜드 FTA 발효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액 비중은 FTA 발효 전 평년 2.9%에서 이행 3년차 2.8%로 0.1%p 하락
 - 뉴질랜드산 수입액(억 달러): 7.87(발효 전 평년) → 6.96('15년) → 7.15(이행 2년) → 7.88(이행 3년)
 - 뉴질랜드산 수입액 비중(%): 2.9(발효 전 평년) → 2.6('15년) → 2.8(이행 2년) → 2.8(이행 3년)

2017년 대뉴질랜드 농축산물 수출액은 평년 대비 1.6% 감소, 전년 대비 4.8% 증가

〈표 9〉 뉴질랜드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증감률	
	10.1-10	11.1-10	12.1-10	13.1-10	14.1-10	15.1-10	2년차 (16.1-10)	3년차 (17.1-10)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전체	702	877	763	801	797	696	715	788	0.2	10.3
농산물	84	107	105	82	100	96	103	118	18.3	15.0
- 가공식품	16	21	22	22	26	25	29	35	53.5	22.0
- 곡류	1	1	1	1	3	2	1	1	-65.3	1.9
- 과일·채소	67	85	82	59	71	68	74	83	12.0	12.4
축산물	280	383	327	340	311	282	294	329	1.0	11.8
임산물	338	386	332	379	386	318	318	341	-6.8	7.3

주 1) 한·뉴질랜드 FTA는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FTA 이행 1년차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2015년도 실적으로 대체함.

2) 연도별 수출입 실적은 매년 1~10월 실적을 기준으로 함.

3) FTA 발효 전 평년은 '11~'15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2017년 과일·채소 수입액은 키위, 아보카도, 체리 등 관세율이 철폐되거나 수입금지조치가 해제된 신선 과일의 수입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2.0% 증가
 - 키위(5,631만 달러), 아보카도(252만 달러), 체리(162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17.0%, 441.9%, 31.0% 증가

※ 관세율 즉시철폐: 체리(24%→0), 수입금지 제외: 체리(2012. 1.), 아보카도의 국내 수요 증가
 ※ 품목별 수입량: 키위(17만 톤→ 22), 아보카도(166톤→ 489), 체리(101톤→ 133)

- 2017년 가공식품 수입액은 혼합조제식료품, 개(고양이) 사료, 포도주,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등의 수입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53.5% 증가
 - 혼합조제식료품(1,597만 달러), 개(고양이) 사료(332만 달러), 포도주(225만 달러), 마요네즈(48만 달러), 아이스크림(47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109.2%, 273.4%, 65.3%, 1,355.9%, 185.5% 증가
- 2017년 축산물 수입액은 쇠고기 수입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치즈, 버터, 양고기, 전지분유 등의 수입액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과 비슷한(1.0%) 수준
 - 쇠고기(9,066만 달러)의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0.9% 감소, 치즈(6,903만 달러), 버터(1,594만 달러), 양고기(827만 달러), 전지분유(627만 달러)는 각각 2.8%, 51.9%, 239.5%, 96.2% 증가

□ 한·뉴질랜드 FTA 이행 3년차(2017년) 대뉴질랜드 농축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 (2011~2015년) 대비 1.6% 감소했으며, 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출액 감소

- 대뉴질랜드 농축산물 수출액은 한·뉴질랜드 FTA 발효 이후 감소했으며, 수출액 비중은 FTA 발효 전 평년 0.56%에서 이행 3년차 0.48%로 감소
 - 대뉴질랜드 수출액(만 달러): 2,855(발효 전 평년) → 3,284('15년) → 2,682(이행 2년) → 2,810(이행 3년)
 - 대뉴질랜드 수출액 비중(%): 0.56(발효 전 평년) → 0.63('15년) → 0.49(이행 2년) → 0.48(이행 3년)

〈표 10〉 대뉴질랜드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액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증감률	
	10.1-10	11.1-10	12.1-10	13.1-10	14.1-10	15.1-10	2년차 (16.1-10)	3년차 (17.1-10)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전체	18	23	25	29	32	33	27	28	-1.6	4.8
농산물	14	19	19	20	25	21	20	23	21.4	16.7
- 가공식품	12	17	17	18	23	18	17	19	7.8	16.6
- 곡류	1	0	0	0	0	0	0	0	-22.9	-21.5
- 과일·채소	1	1	1	1	2	3	3	4	149.9	19.5
축산물	4	4	6	9	6	11	6	5	-32.1	-26.1
임산물	0	0	0	0	0	0	1	0	6.0	-67.0

주 1) 한·뉴질랜드 FTA는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FTA 이행 1년차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2015년도 실적으로 대체함.

2) 연도별 수출입 실적은 매년 1~10월 실적을 기준으로 함.

3) FTA 발효 전 평년은 '11~'15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2017년 가공식품 수출액은 켈런, 라면, 기타베이커리제품, 기타음료, 비스킷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7.8% 증가
 - 켈런(390만 달러), 라면(387만 달러), 기타베이커리제품(186만 달러), 기타음료(126만 달러), 비스킷(108만 달러)의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9,024.5%, 53.6%, 41.7%, 24.9%, 47.3% 증가
- 2017년 과일·채소 수출액은 신선 포도, 신선 배, 김치, 고추 등의 수출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49.9% 증가
 - 신선 포도(38만 달러), 신선 배(13만 달러), 김치(115만 달러), 고추(10만 달러)의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319.1%, 41.8%, 73.1%, 34.3% 증가
- 2017년 축산물 수출액은 젤라틴, 연유 등의 수출 감소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32.1% 감소
 - 젤라틴(407만 달러), 연유(4만 달러)의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각각 34.7%, 33.0% 감소

2017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92.1%로 매년 상승추세,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4.6%로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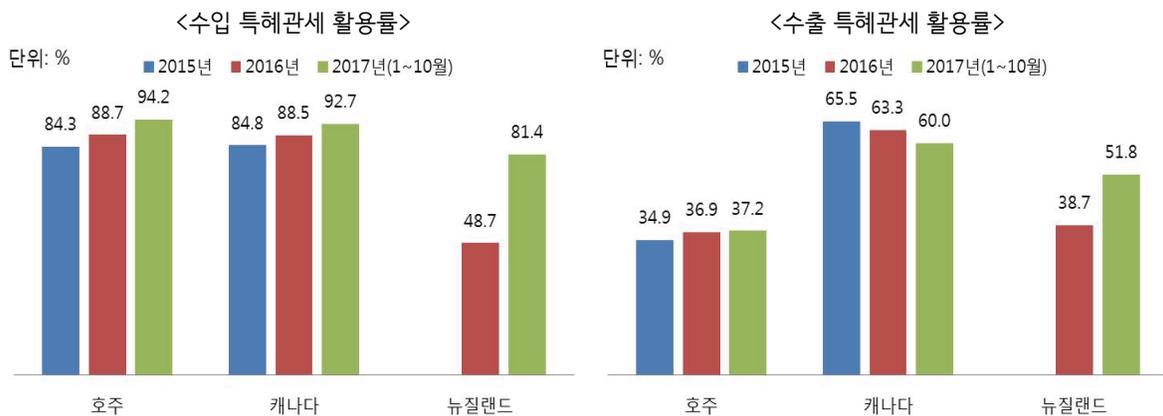
2.3.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율 활용 현황³⁾

2.3.1. 개요

□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전체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⁴⁾은 2015년 84.4%, 2016년 88.6%, 2017년 92.1%로 상승 추세

- 2017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32.0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액은 29.5억 달러
 -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액은 호주산이 21.4억 달러로 가장 많고,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은 각각 4.2억 달러와 3.9억 달러
 - 2017년 호주산,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각각 94.2%, 92.7%와 81.4%

〈그림 2〉 영연방 국가별 수출입 특혜관세 활용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를 이용해 저자 분석.

□ 영연방 국가로의 전체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⁵⁾은 2015년 47.8%, 2016년 44.1%에서 2017년 44.6%로 하락 후 정체

- 2017년 대영연방 국가로의 농축산물 수출액은 2.2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은 수출액은 9,956만 달러

3) 2017년도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은 2017년 1~10월 수출입액을 대상으로 하며, 영연방 국가 전체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양허대상 수출입액 합계에서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은 수출입액 합계의 비중을 의미함.

4) ‘FTA 대상 품목’은 FTA 협상 결과 실제 관세율 인하 혜택이 주어지는 품목을 의미하며, ‘특혜관세율 적용’은 수입 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함.

5)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상대국의 양허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수출액 가운데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은 금액의 비중을 의미함.

2017년 호주산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94.2%로 상승추세,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37.2%로 정체

-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출액은 대호주가 5,230만 달러로 가장 많고, 대캐나다·뉴질랜드는 각각 3,269만 달러와 1,456만 달러
- 2017년 대호주·캐나다·뉴질랜드의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각각 37.2%, 60.0%와 51.8%

2.3.2. 한·호주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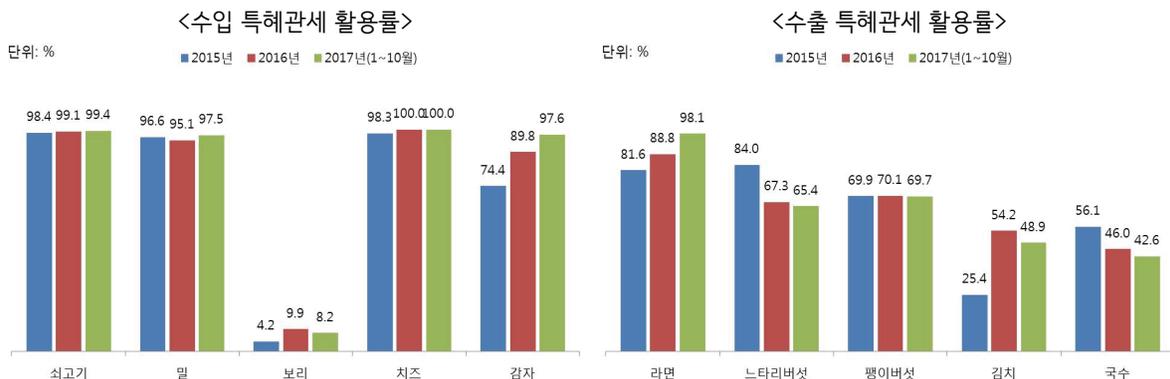
□ 2017년 호주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과 비슷한 94.2%

- 이행 4년차 호주산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22.8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액은 21.4억 달러
 - 호주산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84.3('15년) → 88.7('16년) → 94.2('17년)
 - 수입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으로는 쇠고기, 밀, 보리, 치즈와 감자 등이 있으며, 보리를 제외하고 모두 90% 이상의 높은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을 보임.

□ 2017년 대호주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과 비슷한 37.2%

- 이행 4년차 대호주 농축산물 수출액은 1.4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 적용을 받은 수출액은 5,230만 달러임.
 - 대호주 농축산물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34.9('15년) → 36.9('16년) → 37.2('17년)
 - 수출규모가 1백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으로는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김치, 국수 등이 있으며, 라면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국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3〉 한·호주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를 이용해 저자 분석.

2017년 캐나다산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92.7%로 상승추세,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60.0%로 하락추세

2.3.3. 한·캐나다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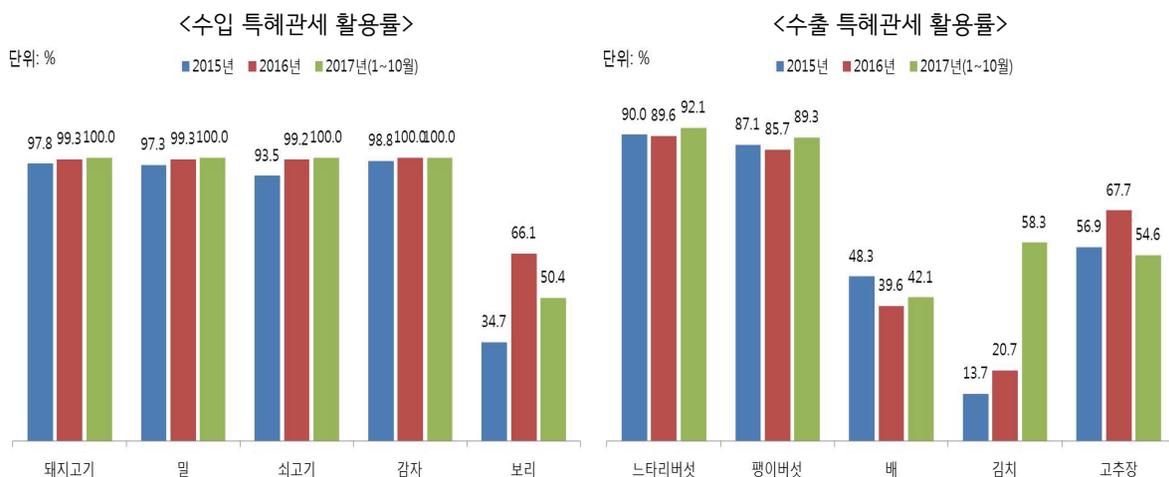
□ 2017년 캐나다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과 비슷한 92.7%

- 이행 3년차 캐나다산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4.6억 달러이며, 그 중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액은 4.2억 달러
 - 캐나다산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84.8(‘15년) → 88.5(‘16년) → 92.7(‘17년)
 - 수입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밀, 쇠고기, 감자, 보리 등이 있으며, 보리를 제외하고 모두 100%에 가까운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을 보임.

□ 2017년 대캐나다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60.0%로 전년 대비 3.3%p 감소

- 이행 3년차 대캐나다 농축산물 수출액은 5,451만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 적용을 받은 수출액은 3,270만 달러임.
 - 대캐나다 농축산물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65.5(‘15년) → 63.3(‘16년) → 60.0(‘17년)
 - 수출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으로는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라면, 고추장, 김치, 홍삼, 배 등이 있으며, 김치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37.6%p 급등함.

〈그림 4〉 한·캐나다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를 이용해 저자 분석.

2017년 뉴질랜드산 수입 및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각각 81.4%와 51.8%로 상승추세

2.3.4. 한·뉴질랜드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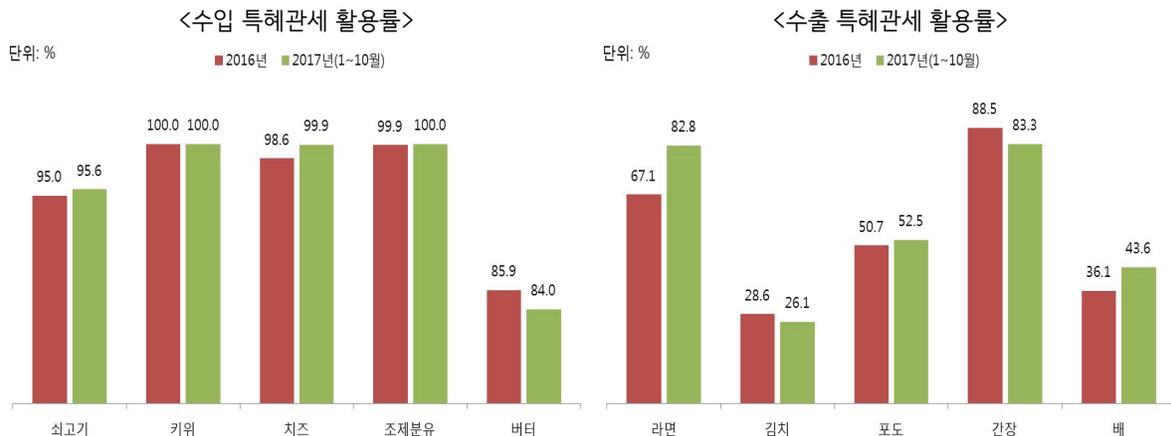
□ 2017년 뉴질랜드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년 대비 32.8%p 증가한 81.4%

- 이행 3년차 뉴질랜드산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은 4.7억 달러이며, 그 중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은 수입액은 3.9억 달러
 - 뉴질랜드산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48.7('16년) → 81.4('17년)
 - 수입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으로는 쇠고기, 키위, 치즈, 조제분유, 버터 등이 있으며, 대부분 80.0% 이상의 높은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을 보임.

□ 2017년 대뉴질랜드 농축산물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51.8%로 전년 대비 13.1%p 증가

- 이행 3년차 대뉴질랜드 농축산물 수출액은 2,810만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율 적용을 받은 수출액은 1,456만 달러임.
 - 대뉴질랜드 농축산물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38.7('16년) → 51.8('17년)
 - 수출규모가 10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으로는 라면, 김치, 간장, 고추장, 포도, 배 등이 있으며, 신선 농산물 가운데 포도는 소폭(1.8%p), 배는 7.5%p의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
 - 라면(82.8%)과 간장(83.3%)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을 보임.

〈그림 5〉 한·뉴질랜드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를 이용해 저자 분석.

03 |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및 가격 분석

2017년 영연방 국가의 수출 경쟁력이 높은 품목들의 수입이 평년과 전년 대비 모두 증가

3.1. 주요 축산물

□ 영연방 국가의 수출 경쟁력이 높은 쇠고기, 면양고기, 치즈와 탈·전지분유 등의 수입량은 협정관세율 인하, 국산 가격 상승 및 국내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FTA 발효 전 평년보다 증가

- 쇠고기 수입량은 국산 쇠고기 가격 상승과 국내 가정 및 식당용 수요 증가 등으로 평년 대비 17.7% 증가한 19만 5천 톤이며, 미국산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6.1% 감소
 - 2017년 1~10월 국산 쇠고기(한우) 가격은 600kg당 594.5만 원으로 평년 대비 23.3% 상승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6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함.
 - 영연방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 비중은 호주산이 86.9%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뉴질랜드산(10.4%)과 캐나다산(2.7%) 순임.
- 면양고기 수입량은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율 인하와 국내 수요 증가 등으로 평년 대비 266.3% 증가한 1만 3천 톤이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전년보다 46.0% 증가
 - 2017년 면양고기 수입단가는 kg당 7.1달러로 평년 대비 31.3%, 전년 대비 32.9% 상승함.
 - 영연방 국가별 면양고기 수입량 비중은 호주산이 93.2%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뉴질랜드산(6.8%)임.

〈표 11〉 영연방 국가의 주요 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톤, %

구분	10.1-10	11.1-10	12.1-10	13.1-10	14.1-10	15.1-10	16.1-10	17.1-10	증감률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쇠고기	160,465	175,769	154,864	162,593	173,194	182,356	207,286	194,730	17.7	-6.1
돼지고기	47,956	78,070	52,996	36,268	33,183	41,765	35,366	35,652	-22.1	0.8
치즈	22,120	22,767	24,189	26,191	12,505	16,493	19,529	25,219	9.5	29.1
면양고기	3,080	3,331	3,546	3,492	4,738	6,287	8,672	12,660	266.3	46.0
탈지분유	4,217	7,681	5,816	5,965	4,665	5,641	5,192	5,670	3.4	9.2
버터	4,478	5,737	4,700	3,383	2,345	2,923	5,003	4,418	5.5	-11.7
전지분유	1,011	2,359	1,174	1,194	1,107	1,564	1,563	2,541	119.4	62.6
조제분유	1,851	1,597	1,489	1,333	1,158	1,377	1,127	1,052	-28.6	-6.7

주 1) 각 연도별 수입량은 1~10월 기준 수입량을 나타냄.

2)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이행 연차가 거듭될수록 협정관세율 인하 효과가 대체로 확대

- 돼지고기는 국산 가격 상승과 수입 돼지고기 수요 증가로 전체 수입량은 증가했으나 EU산 수입 증가 등으로 영연방 돼지고기 수입량은 평년 대비 22.1% 감소한 3만 6천 톤
 - 2017년 1~10월 국산 돼지고기 가격은 110kg당 42.7만 원으로 평년 대비 19.4% 상승했고, EU산 수입량은 23만 3천 톤으로 평년 대비 73.6% 증가함.
 - 영연방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량 비중은 캐나다산이 98.1%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호주산(1.9%)임.
 - 치즈와 탈·전지분유 수입량은 국산 원유 가격 상승과 국내 수요 증가 등으로 평년과 전년 대비 모두 증가
 - 2017년 1~10월 국산 원유의 농가수취가격은 ㄹ 당 1,136원으로 평년 대비 19.0%, 전년 대비 5.0% 상승
 - 치즈 수입량은 2만 5천 톤으로 평년과 전년 대비 각각 9.5%와 29.1% 증가했으며, 뉴질랜드산이 68.4%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호주산(31.6%)이 수입됨.
 - 탈지분유 수입량은 5,670톤으로 평년과 전년 대비 각각 3.4%와 9.2% 증가했으며, 호주산이 76.7%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뉴질랜드산(23.3%)이 수입됨.
 - 전지분유 수입량은 2,541톤으로 평년과 전년 대비 각각 119.4%와 62.6% 증가했으며, 뉴질랜드산이 77.6%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호주산(22.3%)이 수입됨.
- 수입량이 급증한 치즈의 협정관세율 인하효과는 전년보다 축소된 반면, 쇠고기, 돼지고기와 버터는 협정관세율 인하효과가 확대됨.
- 2017년 1~10월 치즈의 통관 가격은 FTA 미발효를 가정할 경우보다 평균 17.1%의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입량 증가로 전년보다 3.4%p 축소됨.
 - 호주산 치즈의 협정관세율 인하 효과는 19.0%로 전년보다 6.4%p 축소되었고, 뉴질랜드산은 전년보다 0.3%p 축소된 15.2%로 나타남.

〈표 12〉 영연방 국가별 주요 축산물의 통관가격 변화

단위: 원/kg, %

구분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버터		
	16.1-10	17.1-10	16.1-10	17.1-10	16.1-10	17.1-10	16.1-10	17.1-10	
호주	FTA 미발효 시 가격	9,355	9,296	1,595	1,521	5,857	6,419	5,123	6,971
	FTA 이행 시 가격	8,821	8,585	1,403	1,277	4,372	5,203	4,217	5,046
	가격 변화율	-5.7	-7.6	-12.0	-16.0	-25.4	-19.0	-17.7	-27.6
캐나다	FTA 미발효 시 가격	7,801	7,637	3,097	3,586	-	-	-	-
	FTA 이행 시 가격	7,500	7,201	2,890	3,237	-	-	-	-
	가격 변화율	-3.9	-5.7	-6.7	-9.7	-	-	-	-
뉴질랜드	FTA 미발효 시 가격	6,875	7,489	-	-	5,215	6,196	7,494	8,163
	FTA 이행 시 가격	6,610	7,061	-	-	4,408	5,257	5,494	5,652
	가격 변화율	-3.9	-5.7	-	-	-15.5	-15.2	-26.7	-30.8
평균 가격 변화율		-4.5	-6.4	-9.3	-12.9	-20.4	-17.1	-22.2	-29.2

주: TRQ가 포함된 치즈·버터의 경우 TRQ 기준 물량만큼은 무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물량만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통관가격을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KEB하나은행 외환포털, FTA별 협정문.

**2017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쇠고기 통관가격은 협정관세율 인하로
소폭 상승했고, 전년보다 하락추세**

- 2017년 쇠고기의 통관 가격은 FTA 미발효를 가정할 경우보다 평균 6.4%의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보다 1.9%p 확대됨.
 - 호주산 쇠고기의 협정관세율 인하 효과는 7.6%,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은 각각 5.7%로 전년보다 각각 1.9%p 확대됨.
- 2017년 돼지고기의 통관 가격은 FTA 미발효를 가정할 경우보다 평균 12.9%의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보다 3.5%p 확대됨.
 - 호주산 돼지고기의 협정관세율 인하 효과는 16.0%로 전년보다 4.0%p 확대되었고, 캐나다산은 전년보다 3.1%p 확대된 9.7%로 나타남.

〈표 13〉 쇠고기의 영연방 국가별 가격 변화 추이

단위: \$/kg, 원/kg, 천 톤, %

구 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등락률		
	10.1-10	11.1-10	12.1-10	13.1-10	14.1-10	15.1-10	16.1-10	17.1-10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수입단가 (\$/kg)	호주	4.47	5.46	5.32	5.33	5.59	6.04	5.77	5.83	8.6	1.1
	캐나다	0.00	0.00	4.60	4.28	5.06	6.85	4.81	4.79	3.0	-0.4
	뉴질랜드	3.24	4.26	3.90	4.04	4.75	4.50	4.24	4.70	15.5	10.8
수입가격 (원/kg)	호주	5,190	6,009	6,043	5,880	5,838	6,796	6,682	6,640	12.4	-0.6
	캐나다	0	0	5,229	4,722	5,285	7,713	5,572	5,455	7.4	-2.1
	뉴질랜드	3,754	4,696	4,425	4,453	4,953	5,065	4,911	5,349	18.2	8.9
통관가격 (원/kg)	호주	7,267	8,413	8,460	8,232	8,174	9,148	8,821	8,585	3.8	-2.7
	캐나다	0	0	7,321	6,610	7,399	10,591	7,500	7,201	1.3	-4.0
	뉴질랜드	5,256	6,574	6,194	6,234	6,934	7,091	6,610	7,061	11.5	6.8
수입량 (천 톤)	호주	92	108	92	107	118	130	148	139	35.7	-6.0
	캐나다	0	0	1	2	2	1	4	4	195.9	17.6
	뉴질랜드	28	28	21	20	19	15	18	15	-33.6	-16.6

주 1) 가격 분석은 냉장쇠고기(0201300000), 냉동갈비(0202201000), 냉동쇠고기(0202300000)를 대상으로 함.
 2) 평년은 호주·캐나다는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뉴질랜드는 '11~'15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3)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14년 12월 12일과 '15년 12월 20일에 협정이 발효되었지만, 분석의 편의상 협정 발효연도에 기준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KEB하나은행 외환포털, FTA별 협정문.

□ 쇠고기의 영연방 국가별 수입단가와 수입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상승했으나, 통관가격은 협정관세율 인하효과로 소폭 상승에 그치고 전년보다 하락한 추세를 보임.

- 쇠고기의 수입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평균 12.7% 상승했으나, 통관가격은 평균 5.5% 상승에 그침.
 - 호주산 쇠고기의 통관가격은 kg당 8,585원으로 평년 대비 3.8% 상승했고, 캐나다산(7,201 원/kg)은 1.3%, 뉴질랜드산(7,061원/kg)은 11.5% 상승함.

2017년 호주산 돼지고기 통관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되고, 캐나다산은 상승폭이 완화됨.

- 호주산과 캐나다산 쇠고기의 통관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2.7%와 4.0% 하락했고, 뉴질랜드산은 수입단가의 상승(10.8%)으로 전년 대비 6.8% 상승함.

□ 호주산 돼지고기의 수입단가와 수입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하락했고 캐나다산은 상승했으나, 협정관세율 인하효과로 하락폭은 심화되고 상승폭은 완화됨.

○ 호주산 돼지고기의 수입단가와 수입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각각 12.1%와 8.5% 하락했으나, 통관가격은 23.2% 하락함.

- 호주산 돼지고기의 수입가격과 통관가격은 kg당 각각 1,217원과 1,277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6%와 9.0% 하락함.

○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수입단가와 수입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각각 23.6%와 28.6% 상승했으나, 통관가격은 15.8% 상승에 그침.

-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수입가격과 통관가격은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각각 15.9%와 12.0% 상승한 kg당 각각 2,866원과 3,237원을 기록함.

〈표 14〉 돼지고기의 영연방 국가별 가격 변화 추이

단위: \$/kg, 원/kg, 톤,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등락률		
	10.1-10	11.1-10	12.1-10	13.1-10	14.1-10	15.1-10	16.1-10	17.1-10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수입단가 (\$/kg)	호주	1.09	1.74	1.16	1.27	1.21	1.11	1.10	1.07	-12.1	-3.0
	캐나다	1.64	2.53	2.25	1.80	2.09	2.03	2.15	2.53	23.6	17.9
수입가격 (원/kg)	호주	1,263	1,920	1,322	1,405	1,261	1,248	1,276	1,217	-8.5	-4.6
	캐나다	1,901	2,782	2,561	1,989	2,183	2,285	2,491	2,886	28.6	15.9
통관가격 (원/kg)	호주	1,578	2,400	1,652	1,757	1,577	1,435	1,403	1,277	-23.2	-9.0
	캐나다	2,366	3,462	3,184	2,480	2,722	2,746	2,890	3,237	15.8	12.0
수입량 (톤)	호주	243	933	471	192	864	592	352	644	22.4	83.0
	캐나다	43,861	66,902	47,822	33,084	28,747	34,457	27,764	27,286	-34.4	-1.7

주 1) 가격 분석은 냉장삼겹살(020319100), 냉동삼겹살(0203291000), 냉동돼지고기(0203299000)를 대상으로 함.

2)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3) 호주의 경우 '14년 12월 12일에 협정이 발효되었지만, 분석의 편의상 협정 발효연도에 기준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KEB하나은행 외환포털, FTA별 협정문.

□ 치즈의 영연방 국가별 수입단가와 수입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하락했으나, 통관가격은 협정 관세율 인하효과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 전년보다 상승한 추세를 보임.

○ 호주산 치즈의 수입단가와 수입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각각 8.0%와 5.9% 하락했으나, 통관가격은 21.2% 하락함.

**2017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치즈 통관가격은 평년보다 하락,
수입수요 증가로 전년보다는 상승**

- 호주산 치즈의 수입가격과 통관가격은 수입단가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각각 9.6%와 19.0% 상승한 kg당 각각 4,720원과 5,203원을 기록함.
- 뉴질랜드산 치즈의 수입단가와 수입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각각 8.2%와 6.1% 하락했으나, 통관가격은 20.4%의 큰 폭으로 하락함.
- 뉴질랜드산 치즈의 수입가격과 통관가격은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각각 18.8%와 19.3% 상승한 kg당 각각 4,556원과 5,257원을 기록함.

〈표 15〉 치즈의 영연방 국가별 가격 변화 추이

단위: \$/kg, 원/kg, 톤,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등락률		
	10.1-10	11.1-10	12.1-10	13.1-10	14.1-10	15.1-10	16.1-10	17.1-10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수입단가 (\$/kg)	호주	4.01	4.43	4.51	4.57	5.12	4.25	3.72	4.15	-8.0	11.5
	뉴질랜드	3.99	4.54	4.29	4.25	5.04	4.28	3.31	4.00	-8.2	20.9
수입가격 (원/kg)	호주	4,649	4,875	5,125	5,042	5,341	4,779	4,307	4,720	-5.9	9.6
	뉴질랜드	4,631	4,995	4,877	4,689	5,265	4,815	3,835	4,556	-6.1	18.8
통관가격 (원/kg)	호주	6,323	6,630	6,970	6,857	5,677	4,955	4,372	5,203	-21.2	19.0
	뉴질랜드	6,298	6,794	6,632	6,377	7,160	5,455	4,408	5,257	-20.4	19.3
수입량 (톤)	호주	6,031	6,086	5,824	4,812	4,401	5,390	5,171	7,969	43.4	54.1
	뉴질랜드	16,089	16,550	18,365	21,378	8,104	11,103	14,358	17,250	1.5	20.1
TRQ 물량 (톤)	호주	-	-	-	-	3,630	4,769	4,912	5,059	39.4	3.0
	뉴질랜드	-	-	-	-	-	7,000	7,210	7,426	-	3.0

주 1) 치즈는 모차렐라·체다·크림 치즈 등 신선·가공·기타 치즈 14개 세번을 포함.
 2) 평년은 호주의 경우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뉴질랜드의 경우 '11~'15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3)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14년 12월 12일과 '15년 12월 20일에 협정이 발효되었지만, 분석의 편의상 협정 발효연도에 기준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KEB하나은행 외환포털, FTA별 협정문.

3.2. 주요 과일

□ 주요 과일 수입량은 주요 수출국 생산량 증가와 협정관세율 인하 등으로 평년 대비 모두 증가했으며, 오렌지와 아보카도 등은 FTA 발효 이후에도 증가 추세 지속

-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키위와 아보카도 수입량은 협정관세율 인하로 평년 대비 각각 16.2%와 319.3% 증가한 2만 2천 톤과 489톤이며, 키위의 경우 현지 생산량의 감소로 전년 대비 6.0% 감소
 - 키위 생산량: 48.9만 톤('16/'17) → 39만 톤('17/'18, 추정치)
- 호주에서 수입되는 오렌지 수입량은 미국산 오렌지의 작황 부진 등으로 평년과 전년 대비 각각 181.0%와 57.1%의 큰 폭으로 증가한 2,025톤
 - 미국산 오렌지 생산량: 552.3만 톤('15/'16) → 459.9만 톤('16/'17)

2017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과일 수입은 평년 대비 증가, FTA 체결국 간 경쟁으로 일부 품목은 전년보다 감소

- 체리(201톤)는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이 수입되고 협정관세율 인하효과 등으로 평년 대비 92.6% 증가했으나, 칠레산 체리 수입으로 전년 대비 65.3% 감소
 - 체리의 영연방 국가별 수입량 비중은 뉴질랜드산이 66.2%로 가장 많고 뉴질랜드산이 33.8%를 차지함.
 - 칠레산,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체리의 수입단가는 kg당 7.83달러, 11.80달러와 12.15달러로 칠레산이 가장 저렴함.

〈표 16〉 영연방 국가의 주요 과일 수입 동향

단위: 톤, %

구분	10.1-10	11.1-10	12.1-10	13.1-10	14.1-10	15.1-10	16.1-10	17.1-10	증감률	
									평년 대비	전년 대비
키위	22,583	23,435	19,015	12,950	15,665	17,126	23,600	22,188	16.2	-6.0
오렌지	0	563	1,590	609	120	897	1,289	2,025	181.0	57.1
아보카도	7	96	151	102	245	248	398	489	319.3	22.8
체리	102	133	104	107	75	342	581	201	92.6	-65.3
포도	0	0	0	0	0	565	274	169	-	-38.3

주: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주요 과일의 협정관세율 적용 전후 통관가격 변화율은 오렌지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뉴질랜드산 키위와 아보카도의 통관가격은 FTA 미발효를 가정할 경우보다 각각 15.5%와 6.9%의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뉴질랜드산 키위와 아보카도는 협정관세율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2016년도부터의 통관가격을 추정함.
- 2017년 호주산 오렌지의 통관가격은 FTA 미발효를 가정할 경우보다 29.4%의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25.5%)에 비해 증가
 - 오렌지는 호주산 계절관세율이 적용되는 4~9월 기준 통관가격을 추정함.
- 2017년 호주·뉴질랜드산 체리의 통관가격은 FTA 미발효를 가정할 경우보다 19.4%의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과 동일한 하락효과를 가짐.
 - 체리의 기준관세율은 즉시 철폐되어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 동일한 하락효과가 나타남.

**2017년 뉴질랜드산 키위와 체리 통관가격은 평년 대비 각각 12.8%와 24.0% 하락
호주산 체리는 24.6% 하락**

〈표 17〉 영연방 국가별 주요 과일의 통관가격 변화

단위: 원/kg, %

구분	키위		오렌지(4~9월)		체리		아보카도		
	16.1-10	17.1-10	16.1-10	17.1-10	16.1-10	17.1-10	16.1-10	17.1-10	
호주	FTA 미발효 시 가격	-	-	3,053	2,889	15,249	16,659	-	-
	FTA 이행 시 가격	-	-	2,276	2,040	12,298	13,435	-	-
	가격 변화율	-	-	-25.5	-29.4	-19.4	-19.4	-	-
뉴질랜드	FTA 미발효 시 가격	3,550	4,190	-	-	16,232	17,158	6,516	7,623
	FTA 이행 시 가격	3,183	3,540	-	-	13,090	13,837	6,216	7,095
	가격 변화율	-10.3	-15.5	-	-	-19.4	-19.4	-4.6	-6.9
평균 가격 변화율		-10.3	-15.5	-25.5	-29.4	-19.4	-19.4	-4.6	-6.9

주: TRQ가 포함된 오렌지의 경우 TRQ 기준 물량만큼은 무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물량만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통관가격을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KEB하나은행 외환포털, FTA별 협정문.

□ 뉴질랜드산 키위의 수입단가와 통관가격은 평년보다 하락했고, 협정관세율 인하폭이 환율 상승폭보다 커서 하락폭이 확대됨.

- 2017년 뉴질랜드산 키위 수입단가는 평년보다 1.7%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12.8% 하락 - 2017년 뉴질랜드산 키위의 협정관세율은 22.5%p 인하된 22.5%가 적용됨.

〈표 18〉 뉴질랜드산 키위의 가격 변화 추이

단위: \$/kg, 원/kg, 톤,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등락률	
	10.1-10	11.1-10	12.1-10	13.1-10	14.1-10	15.1-10	16.1-10	17.1-10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수입단가 (\$/kg)	2.17	2.64	2.74	2.36	2.77	2.50	2.11	2.54	-1.7	20.1
수입가격 (원/kg)	2,512	2,912	3,115	2,604	2,887	2,814	2,448	2,889	3.2	18.0
통관가격 (원/kg)	3,643	4,223	4,517	3,775	4,186	4,081	3,183	3,540	-12.8	11.2
수입량 (톤)	22,583	23,435	19,015	12,950	15,665	17,126	23,600	22,188	16.2	-6.0

주 1)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2) 뉴질랜드의 경우 '15년도에 협정이 발효되었지만, 분석의 편의상 협정 발효연도에 기준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KEB하나은행 외환포털, FTA별 협정문.

□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체리의 수입단가, 수입가격과 통관가격은 평년보다 모두 하락했고, 기준관세율이 즉시 철폐되어 그 변화폭은 확대됨.

- 2017년 호주산 체리 수입단가는 평년보다 7.9%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24.6% 하락(수입가격은 6.5% 하락)
- 2017년 뉴질랜드산 체리의 수입단가는 평년보다 6.9%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24.0% 하락(수입가격은 5.8% 하락)

2017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밀·보리 수입량은 평년 대비 감소, 기타 곡물 수입량은 증가

〈표 19〉 체리의 영연방 국가별 가격 변화 추이

단위: \$/kg, 원/kg, 천 톤,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등락률		
	10.1-10	11.1-10	12.1-10	13.1-10	14.1-10	15.1-10	16.1-10	17.1-10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수입단가 (\$/kg)	호주	13.25	12.62	14.52	12.56	12.53	12.73	10.62	11.80	-7.9	11.2
	뉴질랜드	11.80	12.02	13.11	14.04	15.73	11.52	11.30	12.15	-6.9	7.5
수입가격 (원/kg)	호주	15,375	13,903	16,486	13,847	13,073	14,326	12,298	13,435	-6.5	9.2
	뉴질랜드	13,691	13,233	14,885	15,486	16,419	12,963	13,090	13,837	-5.8	5.7
통관가격 (원/kg)	호주	19,065	17,240	20,442	17,171	16,210	14,326	12,298	13,435	-24.6	9.2
	뉴질랜드	16,977	16,409	18,457	19,203	20,359	16,075	13,090	13,837	-24.0	5.7
수입량 (천 톤)	호주	6	25	8	9	5	231	301	68	789.4	-77.4
	뉴질랜드	96	109	97	98	70	111	280	133	37.5	-52.3

주 1) 가격 분석은 체리(0809210000), 신체리(0809210000)를 대상으로 함.

2)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임.

3)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14년과 '15년도에 협정이 발효되었지만, 분석의 편의상 협정 발효연도에 기준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KEB하나은행 외환포털, FTA별 협정문.

3.3. 주요 곡물

□ 밀과 보리 수입량은 국가별 수입선 전환 효과에 따라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했으나, 호주와 캐나다의 연이은 풍작에 따른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

- 밀과 보리는 2007년 이상기후에 따른 애그플레이션 이후 주요국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국가 간 수입선 전환이 크게 나타남.
- 2014년 하반기 발생한 엘니뇨는 2016년 상반기에 해소되었으며 이후 호주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
 - 2016/17년 호주산 밀과 보리 생산량은 각각 3,350만 톤과 1,341만 톤으로 전년 대비 각각 50.4%와 49.2% 증가
 - 영연방 국가별 밀과 보리의 수입량 비중은 호주산이 각각 84.6%와 82.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캐나다산이 각각 15.4%와 17.4%를 차지함.

※ 호주 생산량: 밀-2,228만 톤(2015/16)→ 3,350만 톤(2016/17), 보리-899만 톤(2015/16) → 1,341만 톤(2016/17)

※ 2017년 FTA TRQ 물량: 호주산-보리(10,612톤), 대두(650톤), 캐나다산-보리(2,500톤), 맥아(15,400톤), 대두(10,000톤)

□ 옥수수, 감자, 귀리, 대두, 강낭콩 등의 수입량은 협정관세율 인하(계절관세), TRQ 물량 도입, 국산 가격 상승 및 국내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가

- 감자 수입량은 국산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등으로 평년 대비 168.3% 증가한 3만 1천 톤이며, 호주 내 병충해(Potato Psyllid, '17. 2.) 발생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0% 감소

- 2017년 1~10월 국산 감자 가격은 kg당 1,246원으로 평년 대비 30.1% 상승했고, 호주산 수입량은 전년 대비 16.1% 감소함.
- 영연방 국가별 감자 수입량 비중은 호주산이 65.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캐나다산(33.9%) 순임.

〈표 20〉 영연방 국가의 주요 곡물 수입 동향

단위: 톤, %

구분	10.1-10	11.1-10	12.1-10	13.1-10	14.1-10	15.1-10	16.1-10	17.1-10	증감률	
									평년 대비	전년 대비
밀	1,545,071	2,700,400	2,347,805	948,348	1,300,550	1,036,369	1,010,345	1,125,461	-35.0	11.4
보리	139,122	183,944	204,495	164,743	214,581	201,175	130,904	173,283	-6.0	32.4
옥수수	23,160	25,944	62,654	51,913	44,607	47,750	25,850	51,225	25.5	98.2
감자	9,767	16,989	13,118	11,596	9,093	20,175	32,798	30,842	168.3	-6.0
귀리	1,712	2,653	3,406	3,290	16,853	21,432	14,631	18,863	505.3	28.9
대두	5,301	9,304	8,131	22,783	6,512	7,985	24,065	13,938	74.6	-42.1
강낭콩	3,572	4,266	3,538	4,393	4,387	3,542	4,505	6,082	49.2	35.0

주: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2017년 기준 영연방 국가의 FTA 체결에 따른 주요 곡물 가격 하락 효과는 밀이 1.8%, 보리가 34.1%, 감자가 16.8%로 추정됨.

- 2017년 1~10월 기준 품목별 통관가격은 호주산·캐나다산 밀은 1.8%, 호주·캐나다산 보리는 각각 17.7%와 50.4%, 호주산·캐나다산·뉴질랜드산 감자는 각각 19.9%, 15.3%, 15.3%의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보리의 경우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겉보리·쌀보리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가격 하락 효과가 큰 캐나다산 보리는 15년 균등철폐와 TRQ가 적용됨.

〈표 21〉 영연방 국가별 주요 곡물의 통관가격 변화

단위: 원/kg, %

구분	밀		보리		감자(5~10월)		
	16.1-10	17.1-10	16.1-10	17.1-10	16.5-10	17.5-10	
호주	FTA 미발효 시 가격	299	281	1,950	1,855	2,548	2,675
	FTA 이행 시 가격	294	276	1,657	1,526	2,165	2,143
	가격 변화율	-1.8	-1.8	-15.0	-17.7	-15.0	-19.9
캐나다	FTA 미발효 시 가격	318	341	2,664	2,556	2,284	2,182
	FTA 이행 시 가격	312	335	788	1,267	1,936	1,849
	가격 변화율	-1.8	-1.8	-70.4	-50.4	-15.3	-15.3
뉴질랜드	FTA 미발효 시 가격	-	-	-	-	1,982	1,940
	FTA 이행 시 가격	-	-	-	-	1,781	1,644
	가격 변화율	-	-	-	-	-10.2	-15.3
평균 가격 변화율		-1.8	-1.8	-42.7	-34.1	-13.5	-16.8

주 1) TRQ가 포함된 보리의 경우 TRQ 기준 물량만큼은 무관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물량만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통관가격을 산출함.

2) 감자는 칩용 감자의 계절관세율이 적용되는 5~10월 기준 통관가격을 추정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KEB하나은행 외환포털, FTA별 협정문.

2017년 호주산 밀의 통관가격은 평년과 전년보다 하락, 캐나다산은 수입단가 상승으로 전년보다 상승

- 호주산 밀의 수입단가, 수입가격과 통관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하락
 - 2017년 호주산 밀의 수입단가는 FTA 발효 전 평년보다 31.1%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29.5% 하락(수입가격은 28.2% 하락)
 - 2017년 캐나다산 밀의 수입단가는 FTA 발효 전 평년보다 25.3%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25.1% 하락(수입가격은 23.6% 하락)

〈표 22〉 밀의 영연방 국가별 가격 변화 추이

단위: \$/kg, 원/kg, 천 톤,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등락률		
	10.1-10	11.1-10	12.1-10	13.1-10	14.1-10	15.1-10	16.1-10	17.1-10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수입단가 (\$/kg)	호주	0.27	0.41	0.32	0.40	0.34	0.29	0.25	0.24	-31.1	-4.3
	캐나다	0.35	0.48	0.42	0.39	0.37	0.35	0.27	0.29	-25.3	9.2
수입가격 (원/kg)	호주	311	453	362	436	357	331	294	276	-28.2	-5.9
	캐나다	408	531	476	431	387	394	312	335	-23.6	7.3
통관가격 (원/kg)	호주	316	461	369	444	364	332	294	276	-29.5	-5.9
	캐나다	417	541	484	439	394	394	312	335	-25.1	7.3
수입량 (천 톤)	호주	798	873	801	750	819	881	878	952	18.1	8.5
	캐나다	146	178	151	142	142	155	133	173	17.9	30.2

주 1)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2) 호주의 경우 '14년도에 협정이 발효되었지만, 분석의 편의상 협정 발효연도에 기준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KEB하나은행 외환포털, FTA별 협정문.

□ 호주산 보리의 수입단가와 통관가격은 FTA 발효 전 평년보다 모두 하락했고, 캐나다산 수입단가는 소폭(△1.6%) 하락한 반면 통관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

- 2017년 호주산 보리의 수입단가는 FTA 발효 전 평년보다 19.5%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33.2% 하락(수입가격은 16.1% 하락)
- 2017년 캐나다산 보리의 수입단가는 FTA 발효 전 평년보다 소폭(△1.6%) 하락했으며, 통관가격은 49.3% 하락(수입가격은 2.0% 상승)
 - 캐나다산 보리의 통관가격 하락은 FTA 체결 후 도입된 TRQ 물량의 영향이 큼.

※ 2017년 캐나다산 FTA TRQ 물량: 보리(2,500톤), 맥아(15,400톤), 대두(10,000톤)

※ 2017년 1~10월 기준 캐나다산 보리 수입량 중 TRQ 비중은 59.5%

2017년 호주산 보리의 통관가격은 평년과 전년 대비 모두 하락,
캐나다산은 전년보다 상승

〈표 23〉 보리의 영연방 국가별 가격 변화 추이

단위: \$/kg, 원/kg, 천 톤, %

구분	FTA 발효 전					FTA 발효 후			등락률		
	10.1-10	11.1-10	12.1-10	13.1-10	14.1-10	15.1-10	16.1-10	17.1-10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수입단가 (\$/kg)	호주	0.39	0.50	0.49	0.52	0.51	0.51	0.43	0.40	-19.5	-7.0
	캐나다	0.52	0.51	0.73	0.69	0.63	0.63	0.62	0.61	-1.6	-2.5
수입가격 (원/kg)	호주	458	547	553	577	533	576	499	456	-16.1	-8.6
	캐나다	607	557	833	766	660	714	721	691	2.0	-4.2
통관가격 (원/kg)	호주	1,832	2,298	2,421	2,420	2,130	2,046	1,657	1,526	-33.2	-7.9
	캐나다	2,239	2,054	3,073	2,827	2,437	1,483	788	1,267	-49.3	60.8
수입량 (천 톤)	호주	124	158	174	143	180	174	113	143	-9.7	26.2
	캐나다	16	26	30	21	35	27	17	30	16.7	72.8
TRQ물량 (천 톤)	호주	-	-	-	-	10.0	10.2	10.4	10.6	-	2.0
	캐나다	-	-	-	-	-	15.5	16.7	17.9	-	7.2

주 1) 평년은 '10~'14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임.

2) 호주의 경우 '14년도에 협정이 발효되었지만, 분석의 편의상 협정 발효연도에 기준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KEB하나은행 외환포털, FTA별 협정문.

04 | 요약 및 시사점

- 한·영연방 FTA는 국가별로 호주는 이행 4년차,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이행 3년차를 맞이함.
- 한·영연방 FTA 이행에 따라 2017년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평년 대비 7.7% 증가했고, 대영연방 농축산물 수출액은 52.0% 증가하는 등 수출입 모두 확대
 -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41.3억 달러이며, 농축산물 수출액은 2.2억 달러로 영연방 3개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
- 다수의 FTA가 이행되면서 협정 체결국 간 수입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가공식품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신선 농축산물의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음.
 - 영연방 국가와 나머지 FTA 체결국과의 품목별 경쟁관계는 미국(쇠고기, 오렌지), EU(돼지고기, 유제품), 칠레(키위) 등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수입 및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7년 각각 92.1%와 44.6%로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상승 추세이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정체
 -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전체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5년 84.4%였으나 2017년 92.1%로 7.7%p 증가했으며,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5년 47.8%, 2016년 44.1%에서 2017년 44.6%로 하락 후 정체
- 한·영연방 FTA 이행이 지속되면서 시장 개방의 수준이 높아지고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요인과 수출로 인한 기회 요인이 확대되고 있어 수입 증가 품목과 대체관계가 큰 국내 신선과일 등에 대한 가격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 필요
 -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FTA 협정 체결국 간 경쟁관계가 나타나면서 협정 체결국별 수입 분석의 효용이 감소하고 있음. 향후 국가별 수입 분석보다는 품목별 수입 분석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영연방 국가 뿐 아니라 협정 체결국에 대한 가격 등의 시장정보 수집 강화, 수출품목의 발굴과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하락하고 있어, 국내 농축산물이 수출 특혜관세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간소화 및 인증수출자 제도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